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41
----------	------

발의연월일 : 2017. 9. 15.

발 의 자 : 박광온 · 최인호 · 이학영
권칠승 · 김종민 · 이찬열
백혜련 · 황 희 · 정재호
김해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일본식 한자어 ‘게기(揭記)된’을 ‘규정된’으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법률 제 호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揭記된”을 “규정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2條(沒收金品の 定義) 本法에서 沒收金品이라 함은 다음 各號 의1에 該當하는 者로부터 沒收 한 武器類, 通信機材, 裝備 其 他 物品과 有價證券, 通貨等 工 作金品으로서 確定判決에서 沒 收되거나 國家保安法 第15條第 2項 및 第22條의 規定에 依하 여 國庫歸屬命令된 것을 말한 다.</p> <p>1. · 2. (생 략)</p> <p>3. 前各號에 <u>揭記된</u> 者로부터 指令을 받아 活動을 하는 者</p> <p>4. (생 략)</p>	<p>第2條(沒收金品の 定義) ----- ----- ----- ----- -----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규정된</u>----- -----</p> <p>4. (현행과 같음)</p>